



전남교육청-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약

전남도교육청과 전남경찰청은 최근 도교육청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및 학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과 교직원 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후원금 전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27일 전당재단 다목적회의실에서 초록 우산 광주지역본부에 광주지역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5월 개최한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 11’에서 기부방방 나눔 부스 운영을 통해 모금된 것이다. 기부방방 나눔 부스는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은 나눔 교육을 받은 뒤 지갑에 동전을 넣고 트램펄린 위에서 뛰며 자연스럽게 동전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기부

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73만여 원의 동전이 모였고, 현장에서 접수된 정기 후원 약정액도 1,850만여 원에 달한다. 이번 후원금은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어린이들이 온전히 자신의 꿈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비와 생활비 등 맞춤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남부대, 국제요리·제과 경연 전원 수상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가 국내 최대 요리 대회인 ‘2025 대한민국 국제요리& 제과 경연대회’에서 참가자 전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7일 남부대에 따르면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는 한국조리협회가 주최하고 조리기능장협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 남부대에서 열렸으며, 조리 종사자와 조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 일반인 등 5,000여명이 참가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남부대 호텔조리학과에서는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금메달 12팀, 은메달 4팀 참가자 40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조준범 남부대 총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준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셰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대 호텔조리학과는 지난 2006년 개설돼 19년째 정통 호텔조리를 기반으로 요리산업 분야의 심층적 이론과 맞춤형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진도경찰, 안전띠 착용 교통 캠페인

진도경찰서는 진도를 철마광장 앞에서 안전띠 착용 일상화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캠페인은 관내 교통사고 및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녹색어머니회, 여성일상지킴이,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이 동참했다.

진도경찰과 협력단체는 주민들에게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잘못된 착용 사례를 안내했다. 뒷좌석에 탑승하는 어린이나 고령자의 안전띠 착용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임진영 진도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없는 진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

“후배들, 정의·평화의 가치 삶 속에 새기길”

학교법인 유은학원 창립 104주년 기념식

총동문화 ‘소년이 온다’ 기증 총 4개 학교에 600권 전달

학교법인 유은학원은 최근 광주동성고등학교 소암회관에서 ‘창립 10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은학원의 전통을 기리고, 학교 운영을 위해 헌신한 교직원과 성실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정행웅 유은학원 이사장, 박규환 유은학원 총동문화장, 각 학교 교장, 운영위원장, 동문회원, 교직원, 학생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은학원 총동문화는 광주의 아픈 현대사를 문학적으로 조명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600권을 4개 학교에 기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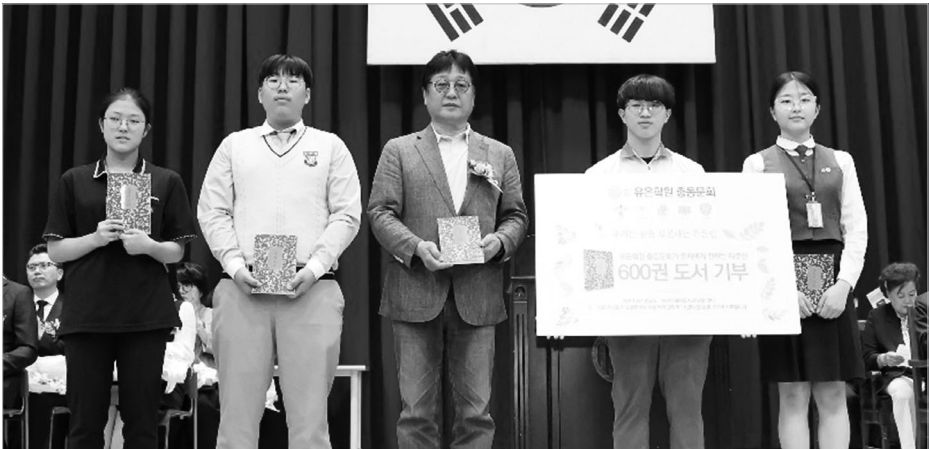
눈길을 끌었다.

이번 도서는 각 학교 도서관과 학급 문고에 지원돼 학생들의 인권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학원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직원 15명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학교 운영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규환 총동문화장은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동문 문재학 열사를 모티브로 창작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통해 후배들이 역사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삶 속에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행웅 이사장은 “유은학원은 1921년 일제강점기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이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사회 공헌이라



유은학원 총동문화가 최근 광주동성고 소암회관에서 열린 유은학원 창립 104주년 기념식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600권을 4개 학교에 기증했다.

유은학원 제공

는 숭고한 이상을 실현해 왔다”며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통섭적인 교육 철학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은학원은 1921년 사립광주보통

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광주상업중, 광주상고, 광주여상고, 광주동성중·여중 등을 잇달아 개교하며 민족 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약 13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대한민국 산업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다움스포츠클럽 양궁 자체대회 성료

클럽 회원 등 20명 선의 경쟁 김성은 교수 원포인트레슨도

2025 광주다움스포츠클럽 양궁 자체대회가 최근 광주여자대학교 실의 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다움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양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궁 붐 조성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다움스포츠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거리별(10m·15m·20m)과 단체전 경기를 진행, 총 2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10m에서는 최선경씨가, 15m와 20m에서는 서승아씨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나광필·박주훈·강윤근씨가 출전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김성은 광주여대 교수(광주은행 댄싱양궁단 감독)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중독 저변확대를 위해 양궁 원포인트 지도와 시범을 선보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대회 우승자들에게는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어 광주



여대 양궁 선수들의 훈련 후 특별식을 대회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제공하며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의 장을 마련했다.

오순근 광주다움스포츠클럽 회장은 “앞으로 안산 등을 포함한 광주여대 선수들과 함께 훈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

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 첫 자체대회를 빛내 준 김성은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등 시민이 함께하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알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경제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한국법무공단 광주전남지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가 27일 경제인위원회(회장 박진호)로부터 생계 곤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을 위한 사랑의 쌀과 라면, 법무보호사업비를 전달 받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기를 꿈꾸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자립 의지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경제인위원회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을 응원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고영훈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위원회 박진호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희망이 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창의교육원, 과학커뮤니케이터 출범

광주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은 최근 본원 아인슈타인실에서 ‘2025 광주 청소년 과학커뮤니케이터(GY-SciTeller)’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학생들이 일상 속 과학 원리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과학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청소년 과학커뮤니케이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나도 S.C. 체험교실’을 통해 과학의 개념부터 소통 방식 등 기초교육

을 받는다.

오는 10월까지 생활 속 과학 원리·오행의 과학 이슈·오행의 과학 인물 등을 주제로 총 4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학교 및 지역사회에 과학을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활동은 올해 9월 창의융합교육원 주관으로 열리는 과학커뮤니케이터 경연대회 ‘광주 청소년 페이퍼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대,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성황

광주대학교가 최근 교내 운동장에서 ‘2025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광주대 학생지원처, 국제협력처, 기업가정신센터, 한국어교육과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지역사회 간의 실질적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태국,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8개 팀 총 150여명이 참가해

조별 리그와 토너먼트 형식으로 열린 경기를 펼쳤다.

행사는 김윤희 광주대 한국어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연대와 화합의 자리가 됐다.

이번 대회 우승은 태국팀, 준우승은 키르기스스탄팀이 차지했다. 페어플레이상은 광주대 유학생팀, 인기상은 방글라데시팀에게 돌아갔다. 최고 골키퍼상은 태국팀의 덩 선수가, 최다득점상은 태국팀의 사야곤 선수가 수상했다.

최환준 기자